

민중(民衆)의 운명(運命)

서반아와 중국의 내란(內亂) 기사를 아침 저녁으로 읽어 오는 동안에 나에게는 「민중의 운명은」 하는 큰 의문이 하나 생겼다. 그리하여 나는 아침 저녁으로 신문을 펴들고는 의문을 풀 열쇠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중화민국의 민중의 복영(福榮)을 위하여—이것이 장개석이가 서남(西南)(?)을 토벌하려는 이유다. 그런데 이종(李宗)이나 백자희(白紫禧)가 국민정부에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이유도 또한 「중화민국의 민중의 복영」을 생각하는 데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서반아의 반군이 수도에다 대포질을 하는 것도, 정부군이 반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독와석을 뿌리는 것도 「서반아 민중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한다.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어찌하여 그들이 그렇게도 행복되게 하여 주기를 염원하는 그들 민중으로 하여금 서로 충질을 하게 하여 그들에게서 사랑하는 아버이를,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형제를, 자매를 빼앗고 집을 불지르는 그런 가장 잔인한 행위를 감행하고 있을까?

민중은 오직 그들의 복락을 그들의 피로써만 쓸 수 있기 때문일까?

그러면 유사 이래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린 민중이 언제 한번 그들의 진정한 복락을 피의 댓가로 받은 일이 있는가?

아마도 민중의 복락은 오직 권력자를 위하여 권력자의 입술 위에서
만 사는 것이 아닐까?

(《조선일보》, 1936. 8. 29)